

동북아 물류중심 국정과제회의

물류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로드맵만 있고 실전은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6개월만에 로드맵이라도 제대로 내놓은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반기부터 하나하나 실천과제와 정책들을 결정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항만간의 경쟁을 얘기합니다. 상해항보다 청도항이 부산이나 광양의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정기선사가 기항지를 옮기면 어느 정도의 비용과 부담이 되는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지금 환적화물에 매달리고 있지만 실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배후단지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화물유통이 주가 돼야 합니다. 항만 연관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합니다. 로텔담 등 세계적인 항구에서 이러한 메카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양항의 입지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이런 연구와 별개로 물류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아직 포화 여부를 살피는 데는 시간이 있는 만큼 거기에 맞게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광양에도 항만공사가 언젠가 설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이제
준하는 지방조직을 반드시 만들어서 광양항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합
니다. 분권시대에 지방에서 좋은 계획 나오지 않으면 중앙에서도 도울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 관련 공단의 이전, 항구의 이름 등을 가지고 지자체, 시민단체들
이 나서서 나름의 주장을 하는데 그 이전이나 이름의 변경이 가져오는 부
가가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